

탐 건립의 기념으로 심은 향나무



지정번호 수원-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730년

수고 10m

흉고둘레 2.8m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탐동 873-4

37° 16' 02.52" N

126° 58' 34.07" E

수원에 탐동이라 부르는 동네가 있다. 탐, 소나무, 향나무와 관련이 많은 곳이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탐동은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로 바뀌었다. 탐동은 이곳에 탐이 있어 탐골, 탐동, 탐리 등으로 불리던 지명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현재 탐동의 이곳저곳에는 탐의 좌대가 남아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탐동은 탐을 세우고 소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수구水口를 막았다. 이 곳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수구(황구지천 추정)를 막기 위하여 탐의 좌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양면에 소나무 여러 그루를 심어 방패로 삼았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쪽과 남쪽에 14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탐동의 자연마을인 골말은 고목의 향나무가 있는 곳에서 성향제를 올렸다. 전승 이야기에 의하면 말을 타고 향나무를 지나려던 사람이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움직이지 못했다. 말에 탄 사람이 말에서 내려와서 향나무에 제를 지내자 말굽이 떨어졌다. 일설에는 임금님도 이곳을 지날 때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그런데 신목의 역할을 하던 성향당의 향나무는 1986년에 도벌이 되면서 사라졌지만

현재 향나무 후계목을 심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골말과 인접한 탐골에는 1982년에 수원의 제1호로 지정한 보호수가 있다. 수원의 여러 보호수 중 첫번째의 의미가 있는 나무이다. 탐의 건립을 기념하여 심은 향나무이다. 높이가 10m, 가슴높이둘레가 280cm 정도이다. 이곳은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골목길이 앞뒤로 지나고 있다. 줄기는 곧게 서는 듯하다가 크게 가지를 뿜어 퍼져 있고, 몇 개의 큰 가지는 다시 작은 가지를 내어 조밀하게 잎을 달고 있다. 나무 모양은 구불구불하게 가지를 내어서인지 자유롭고 평평짐하게 퍼진 모습이다. 아래로 처진 가지는 지지대가 받쳐주고 있다. 밑동 줄기는 세로 주름처럼 골이 있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갈라지는 줄기의 아래쪽은 썩은 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인공수피를 입혀놓았다. 이곳의 기념비에 따르면 탐을 엮어놓는 받침대가 탐골에 있었고, 그 좌대座臺가 바로 옆 교회 자리에 있었다. 지금도 그 좌대의 반이 남아있다. 이곳은 교회, 어린이공원 및 주택이 들어서 있다. 그 건물 사이에 나무나이 730년의 향나무가 탐동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자라고 있다.

